

1. 출국 전 준비

출국 전에 준비해야 할 항목으로는 크게 수강신청, 기숙사, 비자, 항공편 등이 있는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POSTECH 해외 단기유학생으로 선발되면, 미국 대학에 지원해서 우리학교의 POVIS와 비슷한 포털 사이트(SOLAR)의 ID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지원서, Study Statement, DS2012, 재정증명보증서, Health Form 등을 작성하여 미국 대학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면, 1~2주 이내에 ID Number가 이메일로 날라옵니다. 이 ID로 SOLAR에 로그인 하면 각종 HOLD가 걸려있는데, 미국 대학 유학담당자가 친절히 설명된 매뉴얼을 이메일로 보내줍니다. 유학담당자가 꼼꼼해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주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수강신청 준비를 완료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전 기숙사를 신청해야 하는데, 정말로 간단합니다. 별다른 절차 없이 학교에서 알아서 배정해줍니다. 교환학생들은 West Apartment를 이용하게 되는데, 하나의 큰 방에 거실, 부엌을 공유하고 6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1인 1실과 2인 1실이 있는데, 가격은 \$4300, \$3800 정도입니다. 대개 1인 1실이 시설이 좋습니다. 1인 1실과 2인 1실은 무작위로 배정되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기숙사 배정 받으신 후에 방 변경 요청하여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항공편을 구입해야 합니다. 저는 출국 3개월 전에 터키항공 이스탄불을 경유하여 뉴욕(JFK)에 도착하는 왕복 항공편을 19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터키항공의 장점이 이스탄불 stopover가 무료이기 때문에 뉴욕에서 한국으로 귀국할 때 터키를 여행할 목적으로 터키항공을 선택하였습니다. 아시안, 대한항공 같이 직항이 편하긴 하지만 어차피 외국에 나가는 김에 다른 나라도 둘러볼 수 있도록 stopover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국 J-1 Visa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수수료 내지 않고 직접 하는 방법과 여행사에 수수료를 조금 지불하고 대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제가 직접 하였습니다. VISA 발급방법은 미국 대사관홈페이지와 각종 블로그에 자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서류는 DS2019를 자세히 보았던 것 같고 간단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교환학생 중에 아주 가끔씩 비자를 한 번에 발급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는데, 인터뷰만 제대로 대답하면 DS2019 서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쉽게 발급해 주는 것 같습니다.

2. 과목정보

저는 총 13학점을 수강하였는데, 수강과목은 ESE342(Digital Communication Systems-3학점), ESE311(Analog Integrated Circuits-3학점), PHY251(Modern Physics-3학점), PHY252(Modern Physics Laboratory-1학점), PSY103(Introduction to Psychology-3학점) 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환학생들은 IAP390/391(American Society and Culture-3학점) 이라는 과목을 많이 수강합니다. 교환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과목인데 로드도 없고 학점도 잘 주는 데다 다양한 친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인데, 저는 수강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수학, 과학이 들어가는 과목은 POSTECH 의 강도 높은 커리큘럼을 버티신 여러분들이라면 수월하게 해낼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 이지만, 영어가 많이 사용되는 인문학, 철학 등의 과목은 노력이 필요하므로 수강신청 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ESE342 (Digital Communication Systems)

Monica Bugallo 라는 아름다우신 젊은 스페인 출신 여교수님이 강의 하십니다. 아침수업을 좋아해서 오전 8시 30분부터 시작 하는 수업이 약간 힘들 수도 있지만, 최대한 자세하고 친절하게 강의해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수업 난이도는 POSTECH에서 정보통신공학개론을 수강한 학생이라면 무난하게 들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시험은 총 4번이고 중간 중간에 MATLAB을 이용한 실습과제가 있습니다. 시험은 시험 약 일주일 전에 교수님께서 예상 문제를 주시는데, 이것만 완벽하게 공부하고 가면 무난한 난이도 입니다. MATLAB 실습이 약간 버거울 수가 있는데, 다른 미국학생들도 다들 어려워하기 때문에 파트너와 잘 협력하고 조교님에게 도움을 받는다면 큰 어려움 없이 해낼 수 있을 겁니다.

2) ESE311 (Analog Integrated Circuits)

Dmitri Donetski 라는 2개의 박사 학위를 가지신 러시아 출신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십니다. 발음이 워낙 특이해서 가끔씩 미국 Native 친구들도 못 알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재는 Sedra Microelectronic circuits 입니다. 매주 숙제가 있고, 이것과 더불어 후반부에는 PSPICE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과제도 함께 나옵니다. 마지막에는 term project는 주어진 specification에 맞는 회로를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험은 총 3번이며, 계산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문제를 빨리 푸는 연습을 많이 하고 가지 않으면 고득점을 받기 어렵습니다.

3) PHY251, 252(Modern Physics, Laboratory)

POSTECH의 현대물리와 상응하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PHY252, 1학점짜리 laboratory도 동시에 수강하여야 합니다. Xu Du라는 젊은 중국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데 영어도 깔끔하시고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주십니다. 매주 4~5문제 정도의 숙제가 나오는데 2문제 정도는 기본예제문제이고, 나머지 2~3문제는 까다로운 문제들입니다. 시험은 총 3번인데, 첫 번째 시험은 special relativity, 두 번째 시험은 atomic physics, 세 번째 시험은 quantum physics를 포함한 지금까지 배운 전 범위가었습니다. 시험 문제들은 생각이 많이 필요한 문제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험은 매주 2시간씩 총 9주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실험 매뉴얼이 은근히 대강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실험 전에 약간의 연습이 필요했고, 보고서는 결과 보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매주 나오는 숙제와 실험 때문에 짜증나는 과목이 될 수도 있으나 지금 뒤돌아 보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과목이었습니다.

4) PSY103 (Introduction to Psychology)

심리학 개론입니다. 학수번호도 103이라 뉴욕주립대의 대부분 학생들이 한 번쯤은 수강하는 개론 과목입니다. Richard Gerrig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데, 저자 직강입니다. 설명도 군더더기 없이 잘하시고 유머감각도 있으신데, 말하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서 처음에는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말하는 속도에 적응될 때까지 수업을 녹음하여 복습하였습니다. 시험은 총 4번이고, 매 시험은 객관식 50문제입니다. 모두 객관식이라고 알보면 안 되는 게, 영어로 말장난 치는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대강 공부했다가는 시험 망치기 십상입니다. 뉴욕주립대의 기본적인 심리학 과목들은 5시간의 심리학 실험 참여를 요구합니다. 이 5시간을 채우지 않을 경우 최종성적이 한 등급 낮게 나오고, 8시간 이상 채우면 최종 성적이 한 등급 높게 나옵니다. 실제 심리학이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 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안목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실험도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3. 대학생활

단기유학은 목표를 정말 구체적으로 세우셔야지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군 제대 후 학업에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하였고, 결과적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고 구체적인 진로계획을 세울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단기유학의 기회를 실제 유학생할을 맛볼 수 있는 기회,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다양한 곳을 둘러보며 저 자신을 정돈하고 알아가는 기회로 만들기로 하고 유학생할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부할 때에는 내가 잠시 왔다가는 교환학생이 아니라 이 학교의 재학생이다 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였고, 주말과 봄방학 등 여가시간에는 최대한 제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보내려고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학업과 운동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였고,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에는 맨해튼으로 나가 관광하거나 주변 명소로 여행을 다녔습니다. 학교가 뉴욕에 있기 때문에 맨해튼 나가는 정말 쉽습니다. YELP 앱을 이용해서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었고, 가끔씩 자동차도 렌트해서 근처 바다에 다녀오곤 했습니다. 여가시간 활용에 대해서 하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셔서 찾아보면 POSTECH을 졸업하시고 미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 선배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봄 방학 기간 동안에는 캘리포니아를 여행하면서 구글 본사, UCSD, 샌프란시스코 등을 방문하여 현지에서 일하고 계신 선배님들을 만나 뵙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조언을 구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여러 선배님들로부터 생생한 미국 생활의 경험담, 실패담, 시행착오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각도 넓어졌던 것 같고, 한국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제 생각과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POSTECH에서 학기를 보낼 때 보다 시간이 많아 여행 다닐 시간이 많아지는데, 이처럼 여행하는 시간도 자신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면 더욱 더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학업 외 활동으로는 International Student Organization 에서 진행하는 English PAL 프로그램에 참가하였습니다. English Native Speaker와 International Student를 1대1로 짝을 맞추어 주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남을 갖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중국계 미국인 여학생과 짝이 지어졌는데, 같이 밥도 먹고 운동도 같이 하면서 미국 문화를 알아가고 영어 말하기 실력도 늘릴 수 있었습니다. 등록금 안에 학교 안의 Recreation Center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지어진 지 채 1년이 안되어 시설이 정말 좋습니다. 수영장이 없다는 게 흠이지만 이 외에는 모든 걸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친구들과 운동도 많이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학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중국어 강의를 수강하였고, 가끔씩 Recreation Center 주관으로 열리는 행사(5km, 10km 달리기, 뉴욕 양키스 경기 관람 등)에 참가하기도 하였습니다. 학교가 종합대학교이고 규모가 크다 보니 클럽(동아리)의 종류도 정말 다양하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정신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기숙사 안에 부엌이 있기 때문에 가끔씩은 외국인 친구들에게 음식도 만들어 주곤 하였습니다.

만약 학업에 본인의 목표가 있다면 좀 더 과목을 많이 수강하고 연구참여를 해보는 것도 좋고, 여행에 뜻이 있다면 로드가 적은 과목을 수강하면서 많은 시간을 여행에 할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놀러 왔다가는 정말 애매하게 한 학기를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4. 유학 경비

항공권(190만원), 기숙사비(450만원), 보험료 및 각종 학교 시설 이용료(180만원), 4개월 생활비(480만원), 여행경비(300만원)로 대략 1500만원 정도를 사용하였습니다.

5. 각종 팁

1) 학교가 뉴욕에 위치해있습니다. 워싱턴DC, 보스턴, 필라델피아, 나이아가라 폭포 등 근거리 여행할 곳이 많기 때문에 시간 계획을 잘 짜면 주말을 이용해서 상당히 많은 곳을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 외국인 친구들에게 정보를 구하거나, <http://www.tripadvisor.com> , <http://www.expedia.com> , <http://www.priceline.com> 그리고 구글 웹 검색을 이용하여 정보를 구했습니다.

2) 학교에 보험료로 대략 600불 정도를 지불하게 되는데, 이 보험 적용 기간이 봄학기라면 봄학기+여름학기, 가을학기라면 가을학기+겨울학기까지 입니다. 교환학생이라면 계절학기를 수강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 Health insurance office로 찾아가 계절학기에 해당하는 액수를 환불 받고 싶다고 말하면 170불 정도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3) Meal plan이 있습니다. 우리학교의 전자화폐같이 학생증에 돈을 충전시켜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West apartment에 거주하는 교환학생들은 meal plan을 구입할 필요가 없는데, 개인적으로 meal plan을 구입하기를 추천합니다. 약 8.5%에 해당하는 New York state tax가 면제됩니다.

4) 학교에서 제공하는 무료 강좌가 많습니다. 권투, 요가 등 스포츠에서 시작하여 중국어, 아랍어, 일본어 등의 언어, 그리고 미술, 헤나, 바텐더 등 정말 다양합니다. 다만 인기 있는 강좌는 빨리 마감되니 Early bird가 되시면 좀 더 유학생활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 프린터, 스캐너, 및 각종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는 하루에 약 50장 정도까지 무료로 가능하였던 것 같고, 스캐너는 도서관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학교 사이트에서 요청하여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6) 핸드폰의 경우, 저는 한국에서 쓰던 갤럭시를 가져와 여기서 prepaid usim을 구입하여 사용하였습니다. T-mobile의 경우 한달 \$50에 전화, 문자 무제한 및 3G 500MB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능 없는 prepaid phone을 구입하는 것 보다는 한국에서 쓰던 핸드폰 연락해서 본인에게 맞는 요금제를 골라 prepaid usim을 이용하는 것이 편한 것 같습니다.

6. 맺음말

단기유학의 성패는 본인 하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말하기에 주눅들지 말고 외국인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긍정적으로 생활하며 많이 준비해서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임한다면 정말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은 기회입니다. 일단 단기유학생으로 선발되신 여러분들 축하 드리고, 여기에는 핵심내용만 최대한 간추려서 적어놓았기에, 혹시라도 뉴욕주립대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 혹은 후에 뉴욕주립대 교환학생 선발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최대한 친절히 더 자세한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